

# 목포시장 선거 조기 과열 우려 목소리 높다

## 지방선거 1년 앞두고 후보 20명 난립 비난 성명전... 공무원 출세우기 폐해

내년 지방선거가 1년 이상 남은 가운데 목포시장 후보군이 난립되면서 조기 과열 양상을 보여 공직 및 지역 사회에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판하는 성명 발표와 기고 등이 잇따르면서 지역정가에서는 건전한 비판이라는 여론보다는 현 시장과의 차별화를 통해 자신들의 이미지와 인지도를 높이려는 저의가 담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또 다른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을 업고 각종 목포시 행사에 단체장을 대신해 참석한다는 명분아래 ‘얼굴 알리기’ 행보를 가속화 해 금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현 목포시장이 3선 재선에 묶여 무주공산이 된 지자체장 자리를 놓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를 바라보는 시장 공직자들은

“이미 행정절차상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나 과거의 주장들을 되풀이해 ‘못 먹는 감 찢러나 보자’는 식의 흡입 내기가 돼서는 안 된다”며 “대안 없는 과도한 비판은 되레 여론을 분열시켜 결과적으로 시장발목을 잡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조기과열 현상은 공직사외 권 가르기와 출세우기라는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자제해야 한다’는 여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출마 의사를 밝힌 시민단체 고위 관계자가 시민단체 이름을 빌어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 사퇴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출됐다. 전체면적 250여㎡, 2층 규모로 피해 장애인 15명이 생활할 수 있다. 사무실과 생활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식당 등을 갖췄으며 사업비 5억4000만원이 들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해늘은 ‘늘 해처럼 밝게 살라’는 뜻으로 피해 장애인의 보호와 상담, 수사, 법률 및 의료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의 심신 회복과 생활 적응 훈련, 직업 재활 훈련 등 지원을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213m 김밥 말기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완도항 해변공원, 장도 유적지, 장보고 기념관 등에서 열린 2013년 완도 장보고 축제에 무려 12만여명의 관광객들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전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청산도를 찾은 관광객들이 장보고 축제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장보고 축제에서는 전통 채취선 노젓기 대회, 완도명품 해조류 선발대회, 해조류 음식개발 경연대회, 213m 김밥 말기, 전국 웃음왕 선발대회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이 선을 보여 호평을 받았다. /원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eichung@

### 목포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해늘’ 개소 본격 운영

목포에 성폭력 장애인 여성 피해자 보호시설인 ‘해늘’이 문을 열었다. 전남도는 5일 성폭력 피해를 본 여성 장애인 보호와 치료회복 지원을 위한 보호시설 ‘해늘’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부산과 광주, 충북에 이어 4번째다. 전남에는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없어 2,3차 피해가

### 한옥호텔 영산재 이용편 30~40% 할인

#### 전남개발공사-삼성카드 협약

전남개발공사는 한옥호텔 영산재의 영업활성화를 위해 삼성카드와 객실 및 전통문화 상품 판매에 관한 업무협약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삼성카드 회원은 영산재 이용시 30%(주말)~40%(주중)의 객실이용료(비수기 기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혼례상품은 할인혜택을 받아 25만

원(정상가 40만원)에 이용이 가능하다. 전남개발공사는 삼성카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다양한 판매시장 루트를 확보함으로써 상호간 매출향상과 고객기반 확대 등 윈윈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영산재 외에 여수에 한옥호텔 ‘오동재’와 여수 경도리조트, 해남 땅끝호텔 등의 관광숙박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진도 서망항 ‘꽃게 풍어로세’

## 하루 평균 적당 250kg 어획 가격은 kg당 2만4천원선

진도 서망항이 봄 꽃게 풍어로 출렁이고 있다. 조도면 외방·독거도 일대 해역에서 끌어올리는 그물마다 제철을 만난 꽃게가 가득, 어민들은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조도면 해역에는 매일 40여척의 꽃게잡이 어선이 출어, 적당 250kg 정도의 꽃게를 잡는 풍어를 이어가고 있다. 하루 위판량은 8~10t에 이른다. 진도군수협이 올해 위판한 꽃게는 129t으로 26억원에 이른다.

진도 해역의 꽃게 어획량은 2009년 243t(34억원), 2010년 769t(97억원), 2011년 930t(142억원), 지난해 890t(132억)으로 급증하고 있다. 진도는 전국 꽃게 생산량의 25%를 차지한다. 조도해역은 냉수대가 형성돼 플랑크톤 등 먹이가 풍부해다가 갯바위 모래층으로 꽃게 서식 최적지로 평가 받고 있다. 연중 적조가 발생하지 않는 청정해역으로 2004년부터 바닷모래 채취를 금지한 것도 풍어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강병준(52)씨는 “요즘 꽃게가 워낙 많이 잡혀 새벽부터 작업하고 있다”면서 “해마다 봄이 되면 진도 앞

바다는 알이 꽉 찬 봄 꽃게가 풍어를 이루고 있다”고 기뻐했다. 알이 퐁퐁하게 올라 미식가들의 식욕을 한껏 자극하는 진도 꽃게는 꽃게집, 탕, 무침, 간장 계장 등으로 인기가 높다. kg당 위판 가격도 2만4000~2만6000원 선으로 지난해와 비슷하다. 알이 꽉 찬 알개를 앞둔 봄에만 맛볼 수 있다. 꽃게 풍어로 서망항은 소매상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진도군과 수협은 진도 꽃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오는 10월 서망항 일원에서 ‘제4회 꽃게축제 한마당’을 연다. /진도=박현영기자 hyupark@

# “순천박람회 사후활용 도시경쟁력 강화 초점”

## 시민토론회서 대학교수 주장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의 효율적 사후활용을 위해서는 박람회 개최로 형성된 인적·물적·사회적 자원을 활용한 도시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정민 순천대 조경학과 교수와 정인호 순천대 공간계획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지난 3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 사후활용 방안 시민토론회’에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 사후활용 방안’ 제하의 참고자료를 통해 “정원박람회장의 사후활용은 지역 활성화 및 도시재생과 연계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원박람회장의 사후활용 방안을 기본방향, 시설운영관리방안, 운영관리파트너십 구축방안, 시민참여 활용방안 등 크게 4개로 나눠 제시했다.



어린이날인 5일 오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이 동천에 설치한 부교를 건너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기본방향은 시민의 요구 및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효율성, 순천시 재정부담 최소화와 수익창출을 염두에 둔 경제성, 박람회장의 혁신을 통한 발전성, 시민이용의 편리성과 관광객 이용 집중성을 기초로 한 공공성, 연관산업 육성을 감안한 정책연계성 등이다. 시설운영관리방안은 최소한의 정비로 기존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해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가 가능한 이색 위락 콘텐츠 개발을 전제로 하고 박람회장 주요 동선에 가까이 위치한 시설(동천공원장, 순천호수정원, 세계정원, 작가정원 등)은 체험·관광

중심형, 외곽에 있는 녹지 위주 시설(에코지오수공관, 명상숲공원, 편백휴양숲 등)은 보존 중심형, 특화시설 정원이나 기존 식물 재배장으로 쓰인

시설(한방체험관, 국제습지센터, 조경산업전시관 등)은 산업 중심형 등으로 각각 설정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탈북미녀와 감동베라이어티 쇼!**

함께하는 **이시기 만나러 갑니다**

**CHANNEL A** 매주 일요일 밤 11시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스카이라이프 13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해남 영암 진도 장흥	IPTV 18

**CHANNEL A** www.ichannelA.com **채널A**